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Family Decision-Making Process of Wedding Process*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정책개발실
위촉연구원 장 주 영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 수 옥 선 화

Gyeonggido Family & Women Development Inst., Division of Policy Development

Researcher : Ju Young Ja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Sun Wha Ok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 II. 관련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family decision-making process when planning a wedding. In this case the planning refers to: the procedure of the wedding: *yedan*, which means presents for parents and relatives: and *yemul*, which means wedding gifts. Decision-making was categorized into four types: decisions led by the bride and groom, decisions led by the groom's parents, decisions led by the bride's parents, and co-decisions by the two families. Resource theory was used as a conceptual framework.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305 adults who got married after 1977 and lived in Seoul.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Variables determining the decision-making of wedding procedure were the groom's age at marriage, the level of familism, and the major source for the wedding expenses. When it came to decisions on *yedan*, gender, the bride's year of education, and the major source for wedding expense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ecision-making. Variables that affected decision-making on *yemul* were the bride's year of education, and the major source for wedding expenses. This study suggested the power structure among bride, groom, and their parents through variables which exert influence on family decision-making.

주제어(Key Words) : 가족 의사결정 (Family Decision-making), 결혼 과정 (Wedding Process), 자원 이론 (Resource Theory)

Corresponding Author : Ju Young Jang, Gyeonggido Family & Women Development Inst., Division of Policy Development, Suwon, 440-704 Korea
Tel: +82-31-220-3963 Fax: +82-31-220-3929 E-mail: jangx095@umn.edu

* 본 논문은 2008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I. 문제제기

전통 사회에서의 결혼은 자녀의 출산을 통해 가문을 영속시키기 위한 제도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의사나 선택보다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서의 성격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연애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결혼이 개인의 선택에 따른 낭만적 사랑의 구현에 기초한 개인 간의 결합이라는 근대적 결혼관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김영옥, 1999; 박민자, 1991; 박숙자, 1991; 이광자, 1999).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결혼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근대적 결혼관이 보편화되어 가는 것(장진경, 2005; 정태연, 2006)과 함께 결혼은 가문의 문제라고 인식되는 측면(김정은, 이기춘, 2006; 이현주, 박서정, 지영숙, 2003)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가 공존하는 이유는 결혼의 당위성 여부와 배우자의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나, 의례로서의 결혼의 진행 과정은 여전히 집안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결혼 비용에 대한 부모 의존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의 진행 과정이 여전히 부모 의존적이며 가문간의 결합이라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때, 새로운 가족의 형성이 여전히 부계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지 또는 양가의 대등한 결합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부계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정도는 낮은 수준이며(옥선화 외, 1998, 2000; 옥선화, 성미애, 신기영, 2000), 가족 내에서 가부장의 권한 역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박부진, 2002). 이러한 변화와 함께 2005년에 호주제를 폐지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2008년부터 개인중심의 신분등록제인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 가족은 제도적으로도 가부장제 가족의 모습을 탈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이러한 의식 및 제도의 변화가 실제 행동의 변화와 일치하고 있는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가족 개념에 대한 의식 조사 연구(양옥경, 2000, 2001)에서는 가족 내에서 양성 평등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동과 관련된 연구들(김미정, 최선영, 2005; 김혜숙, 김은희, 김항원, 유철인, 장현섭, 1999; 박혜인, 2001)에서는 여전히 양성 간의 차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은 양가의 결합 과정을 통하여 이와 같은 가족과 관련된 의식과 행동의 다양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 관련 가치가 결혼 과정에서의 행동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의식과 행동의 일치 여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결혼 과정에서는 양가 사이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

지만, 권력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논의에 참여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가이다(Blood & Wolfe, 1960). 이러한 의사결정을 통해 드러나는 권력은 단순히 개인 간의 결정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기대와 권위에 대한 표출 양식이며(Rodman, 1972), 권력 관계는 통제권을 누가 획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Cheek, 1987) 결혼 과정에서의 권력 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양가의 권력 관계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기대를 포착하기 위해 결혼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행동의 실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가족 내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자원 이론은 크게 Blood와 Wolfe(1960)의 자원 이론과 Rodman(1972)이 제시한 규범적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자원 이론이 개인이 소유하고 제공하는 자원의 양이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반면, 규범적 이론은 의사결정이 자원뿐만 아니라 문화적 맥락의 규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자원보다 규범이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Burr, Ahern, & Knowles, 1977; Quarm, 1981). 자원 이론은 핵가족화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부부 관계의 권력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에서는 핵가족이 아닌 가족 체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가족 체계에서는 더 많은 가족 성원의 역할이 협상 과정에 수반되므로 자원 이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Warner, Lee, & Lee, 1986). 특히 결혼이라는 사건이 가문의 일로 인식되고 양가 사이의 협상을 통해 진행되는 결혼 과정의 특성(김은희, 1994)을 고려해볼 때, 결혼 과정에 수반되는 의사결정에 자원 이론을 적용하여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혼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중에서 결혼 당사자 또는 양가 간에 가장 갈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결혼 절차의 결정, 예단의 결정, 그리고 예물의 결정(김명나, 이정우, 1999; 김모란, 1995; 박민자, 1991; 박숙자, 1991; 이현주 외, 2003)이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통해 드러나는 권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므로, 선행연구의 지적에 따라서 결혼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결혼 절차, 예단, 예물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에 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갖는다. 즉, 결혼 과정 중에서 결혼 절차, 예단의 결정 및 예물의 결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자원 이론을 중심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족 관련 의식이 가족 형성 과정인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는 실제 행동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관련연구 고찰

1. 가족의사결정과 자원이론

가족 내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이론은 자원 이론이다. 이는 크게 Blood와 Wolfe의 자원 이론(Resource Theory, 1960)과 Rodman의 규범적 이론(Normative Theory, 1972)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사결정에 참여한 각 사람이 기여한 상대적인 자원의 양에 의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자가 정해질 것이라는 가설이 Blood와 Wolfe의 기본 관점이다. 이들은 권위에 대한 신념과 같은 가치 체계는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권력은 각자가 기여한 상대적 자원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이론은 교환 이론을 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Warner et al., 1986).

반면, Rodman은 자원만으로는 의사결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의사결정은 자원뿐만 아니라 문화적 맥락의 규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자원보다 규범이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문화적 맥락이 서로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원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Rodman, 1967), 그 사회의 지배적 규범이 무엇인지에 따라 자원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가부장적 규범이나 남녀평등 규범이 절대적인 사회에서는 자원과 권력이 상관관계를 갖지 않지만, 사회의 지배적 규범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규범의 영향력이 자원의 영향력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자원 이론이 핵가족 체계에서의 권력 협상 구조에 대한 논의로 시작되었지만 반드시 부부 간 의사결정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Warner와 그의 동료들(1986)은 사회의 지배적인 가족·친족 구조와 같은 사회적 구조 역시 권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직간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며, 자원이론이 친족 구조와 가족 체계 속의 협상 과정을 살펴보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결혼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은 결혼 당사자인 자녀와 양가 부모간에 이루어지는 협상 과정이므로, 여기에 자원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우, 자녀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녀의 연령, 자녀의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Jenkins, 1979; Roberts, Wortzel, & Berkeley, 1981). 먼저,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며(Jenkins, 1979), 자녀가 기여하는 소득이 많을수록 의사결정에서 자녀의 영향력이 증가한다(Flurry, 2007; Moschis & Mitchell, 1986). 한편, 저소득층의 자녀보다 중산층 이상의 자녀가 의사결정에

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것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자녀가 갖는 정보나 지식의 양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Flurry, 2007), 이는 Foa(1993)가 자원으로 분류한 정보의 소유 여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결혼 과정과 의사결정

1)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개념

결혼은 시대의 가치나 문화, 규범이 반영되는 의례로서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결혼 과정에 대한 각각의 결정들은 과거에는 그 절차의 특성에 따라 의사결정자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였으나(김신연, 2005; 홍나영, 이은진, 박선희, 2002), 현재에는 이에 대해 어떤 규범이나 합의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규명된 바가 없으며 단지 양가 사이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견해(김은희, 1994; 박선용, 1999; 조희선, 류미현, 1999; Kang, 1991)가 있을 뿐이다.

결혼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중 결혼 절차의 결정과 예단의 결정 및 예물의 결정은 가장 같듯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과정이다(김명나, 이정우, 1999; 김모란, 1995; 박민자, 1991; 박숙자, 1991; 이현주 외, 2003). 전통 사회에서는 결혼 절차의 진행에 대한 관습과 규범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결혼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관행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택일이나 결혼식 장소의 결정 등 결혼 절차와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결정이 당사자 및 양가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더라도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권한을 누가 갖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적다.

예단은 본래 결혼을 앞둔 양가에서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선물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신부가(家)에서 신랑가(家)로 보내는 예단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여겨지는 반면, 신랑가에서 신부가로 보내는 예단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박선용, 1999). 그리고 예물은 결혼 당사자간의 증표로 교환하는 것이지만 신부에 대한 예물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예물의 양과 질은 당사자보다 양가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선용, 1999). 예단과 예물은 결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양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김정은, 이기춘, 2006; 박선용, 1999; 조희선, 류미현, 1999), 이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2)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과 부모의 역할

결혼은 결혼 당사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당사자의 부모에

계도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며, 결혼 과정에서도 양가의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결혼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크게 결혼 비용의 부담과 결혼 과정의 진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결혼 비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결혼 비용의 상당 부분을 결혼 당사자의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기의 연장에 따라 경제적인 독립의 시기가 늦추어짐으로써 결혼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데(이기춘, 조은정, 1992; 박혜인, 2001; 임혜경, 2001; 조희선, 류미현, 1999), 이러한 결혼 비용의 부모 부담 정도는 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중산층 이상에서는 결혼 비용의 부모 부담 정도가 높게 나타나며(박숙자, 1991; 이기춘, 조은정, 1992), 저소득층에서는 결혼당사자가 결혼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데(박숙자, 1991), 이것은 결혼이 결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가시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김정은, 이기춘, 2006; 임혜경, 2001; 홍나영 외, 2002).

결혼 비용의 부모 부담과 함께 논의되는 것은 부모 주도적인 결혼의 진행이다. 결혼 과정에서의 부모 주도성의 경향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부모 주도적인 결혼의 진행은 특히 중산층 이상의 집단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임혜경, 2001; 조희선, 류미현, 1999),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부모 의존도가 낮고 결혼 당사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박숙자, 1991)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랑과 신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이 적어지는 것(Kang, 1991)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부모 주도적인 결혼 과정은 양가의 부모가 평등한 입장에서 결혼을 논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부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된다(김은희, 1994; 박선웅, 1999; 박혜인, 2001; 조희선, 류미현, 1999).

3)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과 자원이론의 적용

결혼 과정 관련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결혼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신랑가(家) 중심의 결혼 과정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식에서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 건네주는 행동이나, 여성이 남성의 집안으로 입적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는 폐백과정(박선웅, 1999), 결혼한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생각의 잔존(김혜숙 외, 1999) 등은 가부장주의가 결혼과정 관련 행동과 의식에 남아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혼수와 예단, 예물 등은 신랑이나 시가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과도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혼과 관련된 결정 사항에 있어서 시가의 권한을 처가의 권한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조희선, 류미현, 1999)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신랑가(家) 중심의 결혼 과정은 혼인거래라는 관점에서 신랑의 자원에 대한 대가로서 해석되기도 하며(김모란, 1995; 조희선, 류미현, 1999), 시가에 편입되는 신부의 입장이 불리하지 않기 위해 치르는 비용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김명나, 이정우, 1999; 김은희, 1994).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은 혼수 등의 형태 분석에 의한 추론으로 내린 결과들이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이 부계 중심 가족 가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아니라 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고 있다.

한편, 규범적 이론에서 논의되는 문화적 맥락은 가부장적 규범의 영향력인데, 규범적 이론에 대해 검증한 선행 연구의 상당수(Conklin, 1979; Rodman, 1972; Warner et al., 1986)는 개인이 갖는 규범에 대해 측정하는 대신 그가 속하는 집단을 기준으로 가부장적 규범을 추정하였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가족 관련 의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가부장적 규범의 지지 정도를 집단 또는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규범의 지지 정도를 개인이 갖는 가족주의가치의 지지 정도로 파악하여, 가족주의가치가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고자 한다.

결혼 당사자간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연령이나 학력 역시 자원의 기능을 할 수 있다(김모란, 1995).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신랑과 신부간의 권력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양가의 부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력 관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연령이나 학력은 3자간 관계에서의 자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결혼 비용만을 자원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그런데 실제 비용을 각각 얼마씩 부담했는지의 여부는 기억에 의한 오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 비용보다는 누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했는지가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 총비용을 누가 주로 부담했는가를 자원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원 이론에 기초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가족주의가치와 결혼 총비용 주부담자가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가족주의가치와 결혼 총비용 주부담자가 결혼 절차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가족주의가치와 결혼 총비용 주부담자가 예단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3] 가족주의가치와 결혼 총비용 주부담자가 예물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구성

1) 가족주의가치 척도

조사대상자의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족주의가치 축약형 척도(옥선화 외, 1998)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 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 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의 4가지 하위영역(옥선화, 1989)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대단히 반대하는 경우에 1점, 대단히 찬성하는 경우에 5점을 주어 점수의 범위는 8점에서 40점이 된다. 따라서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주의가치 척도의 cronbach α 값은 .69로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 결혼 총비용 주부담자

결혼 총비용 주부담자는 주택 비용을 제외한 결혼 과정에서의 총비용을 주로 부담한 자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결혼 시기의 범위가 약 30년으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특히 주택의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결혼 시기에 따라 많은 편차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 비용은 결혼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주택 비용의 부담은 주로 신랑측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김도란, 1995; 김정은, 이기훈, 2006). 이때의 '신랑측'은 신랑과 신랑의 부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결혼 당사자와 양가의 부모를 분리하여 3자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므로 주택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총비용으로 설정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결혼에 든 총비용(주택 제외)은 누가 가장 많이 부담했습니까?'로 구성하였고, 문항의 응답은 본인과 배우자, 남편의 부모, 부인의 부모, 기타의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3)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

선행 연구들은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의사결정 유형은 남편 우위형, 부인 우위형, 일치형 등과 같이 주로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드물어 보편적인 분류 방식이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세 집단인 당사자, 신랑 부모, 신부 부모를 중심으로 하여 의사 결정 유형을 당사자 주도형, 신랑 부모 주도형, 신부 부모 주도형, 양가 공동형의 네 가지로 정의하였다.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질문은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결혼의 절차(택일이나 결혼식 장소의 결정 등)와 관련된 사항은 주로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예단에 관련된 사항을 주로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예물에 관련된 사항을 주로 누가 결정하셨습니까?'이며, 응답은 본인과 배우자, 남편의 부모, 부인의 부모, 양가 공동의 네 가지로 구성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이 연구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자원과 가치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사 대상자를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기혼 남녀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1977년 이후에 결혼하였으며, 결혼 당시 연령이 20 ~ 30대인 집단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은 많은 연구(박숙자, 1991; 정용선, 김경연, 김득성, 1995)에서 과다 혼수 및 혼례 행동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 시기 중 1977년은 제 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7 ~ 1981년)이 시작된 해인데, 제 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성장만을 중시하던 이전의 경제개발계획에서 벗어나 사회 개발을 통한 형평의 증진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이다.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개인의 의식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1977년을 조사 대상의 결혼 시기 시점으로 삼고자 한다. 여기서는 1977년 이후 약 30년의 기간을 사회·경제적 변화에 큰 획을 그은 두 사건인 1988년 88올림픽과 1997년의 IMF를 중심으로 결혼 코호트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이 선정된 결혼 코호트 중에서 분석 대상을 결혼 연령이 20 ~ 30대인 경우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40세 이후에 초혼하는 비율이 낮으며 이 시기에 초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연령에 초혼을 한 경우와는 상대적으로 다른 특수한 성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조사에 앞서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예비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및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이 결과를 통해 본조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조사는 2006년 11월 6일부터 2007년 1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1977년에서 2006년 사이에 결혼하였으며, 결혼 당시 연령이 20~30대인 남성 133, 여성 172명으로 총 305명이다.

4. 자료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각의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결혼 과정 의사결정 유형별로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셋째, 가족주의가치와 결혼 총비용의 주부담자가 결혼 과정에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수를 통제하고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AS 9.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 남녀 305명이다. 조사 대상자 중 남성은 133명(43.6%), 여성은 172명(56.4%)으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조금 더 높았다. 조사 대상자의 응답 당시(2006년) 연령 분포는 20대가 15명(4.9%), 30대가 103명(33.8%), 40대가 126(41.3%)명, 50대가 61(20%)명이었다. 조사 문항에는 배우자 관련 변수에 대한 사항도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표 1>의 일반적 특

성에는 신랑과 신부의 일반적 특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표 1>을 보면 결혼 당시 신랑의 연령이 20대인 경우는 59.0%, 30대인 경우는 41.0%로 나타났으며, 결혼 당시 신부의 연령이 20대인 경우는 전체의 85.9%, 30대인 경우는 14.1%로 나타났다. 신랑의 결혼연령 평균은 29.1세이며 신부의 결혼연령 평균은 26.4세였다.

신랑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인 경우가 24.6%, 전문대졸·대졸인 경우가 60.7%, 대학원 이상인 경우가 14.8%로 나타났으며, 신부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인 경우가 40.0%, 전문대졸·대졸이 50.8%, 대학원 이상이 9.2%로 신랑의 교육수준이 신부의 교육수준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결혼 시기는 1977년에서 1987년 사이에 결혼한 코호트가 39.7%, 1988년에서 1996년 사이에 결혼한 코호트가 30.5%, 1997년에서 2006년 사이에 결혼한 코호트가 29.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가치 관련 변수인 가족주의가치의 평균은 22.4점(표준편차 5.1)로 조사대상자들의 전반적인 가족주의가치 지지 수준은 중간(24점)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과정에서 필요한 총비용을 주로 부담한 사람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결혼에 필요한 총비용의 주부담자는 결혼 당사자(57.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랑의 부모가 주부담자인 경우가 21.6%, 신부의 부모가 주부담자인 경우가 21.0%로 나타났다.

2.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의 전반적 경향

결혼 절차, 예단, 예물에 관련된 사항을 주로 누가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결혼 당사자 주도형이 모든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결혼 절차와 예물 결정에서는 당사자 주도형, 신랑 부모 주도형, 신부 부모 주도형, 양가 공동형의 순으로 나타났고, 예단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당사자 주도형, 신부 부모 주도형, 신랑 부모 주도형, 양가 공동형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신랑		신부	
		빈도(%)	평균(S,D)	빈도(%)	평균(S,D)
결혼 당시 연령	20대	180(59.0)	29.1(3.0)	262(85.9)	26.4(2.8)
	30대	125(41.0)		43(14.1)	
교육수준	고졸 이하	75(24.6)		122(40.0)	
	전문대졸, 대졸	185(60.7)		155(50.8)	
	대학원 이상	45(14.8)		28(9.2)	
결혼 시기	1977년 ~ 1987년	121(39.7)			
	1988년 ~ 1996년	93(30.5)			
	1997년 ~ 2006년	91(29.8)			

〈표 2〉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

의사결정 유형	결혼 절차 결정	예단 결정	예물 결정
당사자 주도형	165명(54.1%)	121명(39.7%)	173명(56.7%)
신랑 부모 주도형	70명(23.0%)	57명(18.7%)	73명(23.9%)
신부 부모 주도형	45명(14.8%)	106명(34.8%)	36명(11.8%)
양가 공동형	25명(8.2%)	21명(6.9%)	23명(7.5%)

주. 백분율의 오차는 반올림으로 인한 것임.

3.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다항로지스틱 분석 결과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가족주의가치와 결혼 총비용의 주부담자가 종속변수인 결혼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결혼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을 결혼 절차 결정, 예단 결정, 예물 결정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는 의사결정 유형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당사자 주도형인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1) 결혼 절차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원과 가치가 결혼 절차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3〉과 같다. 먼저 통제변수인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수 중 의사결정 유형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신랑의 결혼연령이다. 먼저, 신랑의 결혼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결혼 절차 의사결정 유형이 당사자 주도형인 경우

에 비하여 신랑의 부모가 의사결정을 할 승산이 14%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의사결정에서 자녀가 미치는 영향력이 자녀의 연령과 관계가 있으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Jenkins, 1979; Kang, 1991). 그리고 결혼 절차는 다른 결혼 과정에 비해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 절차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의존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가족주의가치는 신랑 부모 주도형인 경우에만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는데, 가족주의가치가 한 단계 높은 집단에 속할수록 당사자 주도형일 경우보다 신랑 부모 주도형일 승산이 약 1.4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주의 가치를 지지할수록 결혼을 신랑 부모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선행 연구들(김은희, 1994; 박선웅, 1999; 조희선, 류미현, 199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결혼 과정에서의 신랑 부모 중심성이 가족주의가치와 연관하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결혼 총비용을 신랑의 부모가 주로 부담한 경우에는 결혼 절차 결정자가 결혼 당사자인 경우보다 양가가 공동으로 결혼 절차를 결정할 승산이 약 3.8배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총비용의 주부담자가 신부 부모인 경우에는 결혼 절차 의사결정 유형이 당사자 주도형일 경우보다 신랑 부모 주도형일 승산이 약 2.2배로 나타났다. 결혼 총비용의 부담이라는 자원의 소재와 의사결정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 결과는 일반적인 자원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다. 신랑 부모가 결

〈표 3〉 자원과 가치가 결혼 절차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신랑 부모 주도형 (N = 70)		신부 부모 주도형 (N = 45)		양가 공동형 (N = 25)	
	(S.E)	odds ratio	(S.E)	odds ratio	(S.E)	odds ratio
성별(여 = 1)	-.34(.35)	.72	.08(.41)	1.09	.26(.51)	1.29
신랑의 결혼연령	-.15(.07)*	.86	-.11(.08)	.90	-.13(.10)	.88
신부의 결혼연령	.03(.08)	1.03	-.17(.10)	.84	-.10(.12)	.91
신랑의 교육기간	-.06(.09)	.94	.05(.11)	1.05	.05(.13)	1.05
신부의 교육기간	-.10(.09)	.90	.09(.10)	1.09	-.09(.12)	.92
결혼 시기	.10(.21)	1.10	.33(.24)	1.39	.23(.31)	1.27
가족주의가치	.34(.14)*	1.41	.11(.16)	1.12	.27(.21)	1.31
결혼 총비용 주부담자						
신랑 부모	.71(.37)	2.02	-.34(.52)	.72	1.32(.51)**	3.75
신부 부모	.80(.41)*	2.22	.30(.44)	1.35	.24(.66)	1.28
상수	4.32(1.89)*		3.39(2.35)		3.46(2.95)	

모형적합도 : chi-square = 53.3**(df = 27) - 2LL = 652.77

주. 결혼 시기 : 1 = 1977-1987년, 2 = 1988-1996년, 3 = 1997년-2006년
 가족주의가치 : 1 = 매우 낮은 집단 ~ 4 = 매우 높은 집단 (4분위수 기준)
 결혼 총비용 주부담자는 더미 변수로 처리하였음. 당사자인 경우는 두 변수 모두 0 기준 집단 : 당사자 주도형

*p < .05, **p < .01, ***p < .001.

혼 총비용의 주부담당자일 경우 양가 공동형의 승산이 증가하는 것은 결혼 절차가 어느 일방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신부 부모가 주부담당자일 경우에는 신부 부모 주도형이나 신부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양가 공동형이 아닌 신랑 부모 주도형의 승산만이 증가하는 것은 결혼 절차 의사결정에서의 신랑 부모 우선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결혼 총비용의 주부담당자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신랑가와 신부가의 권력 관계를 나타내는 한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랑 부모가 주로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신부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신부 부모가 비용의 주부담당자일 경우에는 오히려 신랑 부모 위주로 절차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 결혼 절차 의사결정이 양가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신랑 부모가 의사결정을 이끌어가는 주도적 입장에 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2) 예단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원과 가치가 예단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4>와 같다. 통제 변수 중 예단 의사결정 유형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성별과 신부의 교육기간이다.

예단은 결혼을 앞둔 양가에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선물의 의미이지만, 실제의 행동에 있어서는 주로 신부측에서 해야 할 의무로 여겨진다(박선웅, 1999). 여기서는 조사대상자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 예단에 대한 의사결정을 결혼 당사자가 할 경우보다 신랑의 부모가 주도할 승산이 약 2.3배인 것

로 나타났는데,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예단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예단은 신랑보다는 신부가 더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며, 신부의 경우에 예단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랑의 부모가 했다고 인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신부의 교육기간은 예단 의사결정 유형이 신랑 부모 주도형인 경우와 신부 부모 주도형인 경우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부의 교육기간이 1년 증가할수록 결혼 당사자가 예단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경우보다 신랑의 부모가 할 승산이 약 1.3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당사자가 의사결정을 한 경우보다 신부의 부모가 할 승산 역시 약 1.3배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사회경제적 계층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신부의 교육기간이 증가할수록 당사자 주도형일 경우보다 신랑 부모 또는 신부 부모 주도형일 승산이 높아지는 것은 중산층 이상에 속할수록 결혼에서의 부모 의존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임혜경, 2001; 조희선, 류미현, 1999)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결혼 당사자의 경우에는 부모에 의존할 수 있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부모의 권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중산층 이상의 자녀는 부모에게서 많은 지원을 받는 대가로 권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주의가치의 지지 정도는 결혼 절차 의사결정과는 달리 예단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 유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단의 속성 자체가 신부측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개인의 가족주의가치의 지지 정

<표 4> 자원과 가치가 예단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신랑 부모 주도형 (N = 57)		신부 부모 주도형 (N = 106)		양가 공동형 (N = 21)	
	β (S.E)	odds ratio	β (S.E)	odds ratio	β (S.E)	odds ratio
성별(여=1)	.82(.40)*	2.26	.19(.33)	1.21	-.83(.60)	.44
신랑의 결혼연령	-.06(.07)	.94	-.07(.06)	.93	-.09(.11)	.91
신부의 결혼연령	-.17(.09)	.85	-.05(.07)	.95	-.12(.12)	.89
신랑의 교육기간	-.15(.10)	.87	-.12(.09)	.89	-.07(.15)	.94
신부의 교육기간	.25(.10)**	1.29	.22(.08)**	1.25	.02(.14)	1.02
결혼 시기	.22(.23)	1.25	-.04(.19)	.96	.05(.33)	1.05
가족주의가치	.16(.16)	1.18	.20(.14)	1.22	.00(.24)	1.00
결혼 총비용 주부담당자						
신랑 부모	.85(.42)*	2.34	.50(.36)	1.65	.25(.66)	1.29
신부 부모	1.29(.50)**	3.64	1.60(.43)***	4.97	2.04(.66)**	7.69
상수	2.32(2.19)		1.21(1.79)		4.57(2.96)	

모형적합도 : chi-square = 58.41***(df = 27) - 2LL = 692.98

주. 결혼 시기 : 1 = 1977-1987년, 2 = 1988-1996년, 3 = 1997년-2006년
 가족주의가치 : 1 = 매우 낮은 집단 ~ 4 = 매우 높은 집단 (4분위수 기준)
 결혼 총비용 주부담당자는 더미 변수로 처리하였음. 당사자인 경우는 두 변수 모두 0
 기준 집단 : 당사자 주도형

* $p < .05$. ** $p < .01$. *** $p < .001$.

도가 다르더라도 이것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 과정에 든 총비용의 주부담자가 예단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총비용의 주부담자가 신랑 부모인 경우와 신부의 부모인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랑의 부모가 총비용의 주부담자인 경우에는 예단 의사결정 유형이 당사자 주도형일 경우보다 신랑 부모 주도형일 승산이 약 2.3배인 것으로 나타나 Blood와 Wolfe(1960)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결혼 과정에 든 총비용의 주부담자가 신부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단 의사결정 유형이 당사자 주도형일 경우보다 신랑 부모 주도형일 승산이 약 3.6배였으며, 신부 부모 주도형일 승산은 약 5.0배, 양가 공동형일 승산은 약 7.7배로 나타났다. Blood와 Wolfe(1960)의 자원 이론의 기본 전제에 따르면 신부의 부모가 총비용의 주부담자일 경우, 신부의 부모가 의사결정권을 갖는 승산만이 높게 나타나야 할 것이지만, 이 결과에서는 신랑 부모 주도형이 될 승산과 양가 공동형이 될 승산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예단을 신부의 부모가 결정하여 신랑의 집으로 선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랑의 부모가 예단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하거나 예단의 수준에 대해 양가가 협의하는 경우가 예단 행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관행(안정남, 1991)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양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은 결혼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양가의 타협 및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합

과정이라는 속성을 드러내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 예물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원과 가치가 예물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5>와 같다. 예물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통제 변수는 신부의 교육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부의 교육기간이 1년 증가할 경우 예물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이 당사자 주도형일 경우보다 양가 공동형일 승산이 약 1.4배였다. 이는 계층이 높아질수록 예물이 양가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기존의 연구(박선웅, 1999)를 통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주의가치는 예단에 대한 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예물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물의 결정이 개인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가족 간의 결합에서 수반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 과정에 든 총비용을 신랑의 부모가 주로 부담한 경우는 예물에 대한 의사결정을 결혼 당사자가 할 경우보다 신랑의 부모가 할 승산이 약 2.3배로, 예물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이 신랑 부모 주도형인 경우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lood와 Wolfe(1960)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총비용의 주부담자가 신부의 부모인 경우는 예물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이 신부 부모 주도형인 경우와 양가 공동형인 경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과정에 든 총비용을 신부의 부모가 주로 부담한 경우, 예물에 대

<표 5> 자원과 가치가 예물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신랑 부모 주도형 (N = 73)		신부 부모 주도형 (N = 36)		양가 공동형 (N = 23)	
	B(S.E)	odds ratio	B(S.E)	odds ratio	B(S.E)	odds ratio
성별(여=1)	.42(.33)	1.52	-.08(.45)	.93	-.33(.56)	.72
신랑의 결혼연령	-.07(.06)	.94	-.08(.09)	.92	-.10(.11)	.91
신부의 결혼연령	-.08(.07)	.92	-.02(.10)	.99	-.20(.13)	.82
신랑의 교육기간	.05(.09)	1.05	.11(.12)	1.11	-.21(.15)	.81
신부의 교육기간	.05(.08)	1.05	.10(.11)	1.10	.36(.15)*	1.43
결혼 시기	.26(.20)	1.29	-.07(.26)	.93	.15(.31)	1.16
가족주의가치	.14(.14)	1.16	.10(.18)	1.11	.24(.22)	1.27
결혼 총비용 주부담자						
신랑 부모	.83(.35)*	2.30	.78(.49)	2.17	.43(.62)	1.54
신부 부모	.51(.40)	1.66	1.26(.48)**	3.54	1.46(.59)**	4.29
상수	.30(1.83)		-2.22(2.54)		2.97(2.88)	

모형적합도 : chi-square = 44.77*(df = 27) - 2LL = 632.93

주. 결혼 시기 : 1 = 1977-1987년, 2 = 1988-1996년, 3 = 1997년-2006년
 가족주의가치 : 1 = 매우 낮은 집단 ~ 4 = 매우 높은 집단 (4분위수 기준)
 결혼 총비용 주부담자는 더미 변수로 처리하였음. 당사자인 경우는 두 변수 모두 0
 기준 집단 : 당사자 주도형

*p < .05. **p < .01. ***p < .001.

한 의사결정 유형이 당사자 주도형일 경우보다 신부 부모 주도형일 승산이 약 3.5배이며, 당사자 주도형일 경우보다 양가 공동형일 승산은 약 4.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의 주부담자가 신부의 부모인 것이 신부 부모 주도형인 경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부의 부모가 총비용을 부담한 것이 양가 공동형에도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기존의 자원 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이는 부모가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보다 양가 부모의 의사를 중요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랑의 부모가 총비용의 주부담자인 경우에는 신랑 부모 주도형이 될 승산만이 증가하는데 비해 신부의 부모가 주부담자인 경우에는 양가 공동형, 즉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부모와 함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선행 연구들(김은희, 1994; 박선웅, 1999; 박혜인, 2001; 조희선, 류미현, 1999)이 지적한 결혼 과정에서의 신랑 부모 중심적인 성격을 드러내 주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V. 결론 및 논의

부계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고 한국 가족이 가장장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있다는 인식 변화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족 의식의 변화와 실제 행동의 변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의식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함께 수반될 경우에 그 사회가 공유하는 규범이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실제 행동도 고찰함으로써 규범의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결혼 과정은 그 시대의 가치나 문화, 규범적인 속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결혼 과정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의사결정은 누가 권력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이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 가족의 실생활에서 어떠한 규범적 속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자원 이론의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혼 과정 중 결혼 절차, 예단, 예물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 가족주의가치, 결혼 총비용의 주부담자가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결혼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유형은 당사자 주도형이 가장 많았으나 결혼 과정 전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결혼 절차와 예물 의사결

정에서는 당사자 주도형 다음으로 신랑 부모 주도형이 높게 나타나 좀 더 부계 중심의 결혼 과정 의사결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예단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신부 부모 주도형이 신랑 부모 주도형보다 높게 나타나, 주로 신부가에서 신랑가에 선물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예단의 속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각각의 결혼 과정이 갖는 속성에 따라 다양한 의사결정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결혼 과정 즉, 결혼 절차, 예단, 예물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 전체 결혼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각 결정이 갖는 속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결혼 절차 의사결정에서는 신랑의 결혼연령, 가족주의가치, 결혼 총비용의 주부담자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랑의 결혼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 절차 의사결정 유형이 신랑 부모 주도형일 경우보다 당사자 주도형일 승산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결혼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 절차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여 당사자가 직접 결혼 절차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가족주의가치는 신랑 부모 주도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 과정에서의 신랑 부모 중심성이 가족주의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결혼 총비용의 주부담자가 신랑의 부모인 경우에 양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할 승산이 높아지며, 신부의 부모인 경우에는 신랑의 부모가 의사결정을 할 승산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신랑의 부모가 결혼 절차 의사결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결혼 절차 의사결정은 다른 의사결정보다 총비용의 주부담자가 갖는 영향력이 작으며 가족주의가치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유일한 부분인데, 이것은 예단이나 예물의 결정에 비해 결혼 절차 의사결정에서는 비용이 갖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절차라는 부분이 의례로서의 규범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예단 의사결정 유형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신부의 교육기간, 결혼 총비용의 주부담자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사대상자가 여성일 경우 예단 의사결정을 신랑의 부모가 했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예단이 신부가(家)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신랑가(家)에 해야 하는 의무로 여겨지는 속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신부의 교육기간이 증가할수록 당사자 주도형보다 신랑 부모 주도형과 신부 부모 주도형이 될 승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서 부모 주도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비용의 주부담자가 신랑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단 의사결정 유

형이 당사자 주도형일 경우보다 신랑 부모 주도형일 승산이 증가하였으며, 신부의 부모인 경우에는 신랑 부모 주도형, 신부 부모 주도형, 양가 공동형이 될 승산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예단에 대한 양가의 타협 및 조정의 모습과 함께 예단이 신랑 부모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예물 의사결정 유형에서는 신부의 교육기간과 결혼 총비용의 주부담자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부의 교육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양가 공동형이 될 승산이 증가하는 것은 계층이 높아질수록 예물의 양과 질이 양가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결혼 총비용의 주부담자가 갖는 영향력은 주부담자가 신랑의 부모인 경우와 신부의 부모인 경우에 따라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총비용의 주부담자가 신랑의 부모인 경우에는 신랑의 부모만이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주부담자가 신부의 부모인 경우에는 양가 부모의 영향력이 모두 증가하는 결과는 결혼 과정에서 나타나 이종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세 가지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결혼 총비용의 주부담자 여부였으나, 결혼 총비용의 주부담자가 반드시 의사결정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에 의해 의사결정자가 정해진다는 Blood와 Wolfe(1960)의 자원 이론은 예단과 예물의 의사결정에서 신랑 부모가 주부담자인 경우에만 지지되었다.

결혼 절차와 예단, 예물 의사결정 모두에서 신부의 부모가 총비용의 주부담자인 경우에는 신랑 부모가 주부담자인 경우와는 달리 기존의 자원 이론을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신부의 부모가 자원을 제공했음에도 신랑 부모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 결과들은 자원의 제공과는 무관하게 결혼 과정에서 신랑의 부모가 더 큰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의식 조사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과는 달리 실제 행동은 여전히 신랑 부모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가족주의가치라는 규범 변수의 영향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의 결혼 과정이 신랑 부모 중심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문화적 맥락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규범적 이론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규범 변수로 가족주의가치를 투입하였을 때, Rodman(1972)의 이론이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은 결혼 절차 의사결정이었다. 결혼 절차는 의례의 특성이 강하게 남아있는 부분이며, 의례는 규범적인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주의가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약 30년간의 결혼 시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코호트가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결혼 과정에서의 행동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가족 관련 의식이 아직까지 행동에서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결혼 당사자 중 1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가족주의가치가 조사당사자의 가치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가치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되었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다수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에서는 각 개인의 특성이 모두 결과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 단위 혹은 부부 및 그들의 부모까지 포함하는 단위의 조사를 실시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상세히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결혼 당사자를 대상으로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조사하였으나,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참여자에 따라 다르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결혼 당사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은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선행 연구들이 실증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결혼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행동에 대해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각각의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해봄으로써 결혼의 각 과정이 갖는 속성과 결혼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가의 권력 관계를 고찰해보았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명나, 이정우(1999). 도시주부의 혼례의식·혼례행동 및 혼례만족-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6), 41-57.
- 김모란(1995). 한국사회의 혼인거래 관행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9(가을), 533-558.
- 김미정, 최선영(2005). 기혼여성의 자아와 가족질서의 균

- 열-통합: 기혼여성들의 명절, 제사 경험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5, 133-187.
- 김신연(2005). 궁중과 사대부가의 혼례 풍속 비교 연구. **문명연지**, 6(3), 135-164.
- 김영옥(1999). 우리 나라 여대생의 배우자 선택 및 결혼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1), 29-43.
- 김은희(1994). 도시 중산층에서의 핵가족화와 가족 내 위계 관계 변형의 문화적 분석. **한국문화인류학**, 25, 183-222.
- 김정은, 이기춘(2006). 결혼의 소비지출과 소비문화 고찰을 통한 결혼준비소비자교육프로그램 구성.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107-128.
- 김혜숙, 김은희, 김왕원, 유철인, 장현섭(1999). 한국 가족/친족 연구의 쟁점: 도시중산층과 제주도의 가족/친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1(1), 1-22.
- 박민자(1991). 도시 중간계층의 혼인거래관행에 관한 연구.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또하나의 문화.
- 박부진(2002). 한국현대가족에서의 가부장적 지위. **여성가족생활연구**, 7, 1-23.
- 박선웅(1999). 혼례의 문화적 모순과 상품화. **가족과 문화**, 11(1), 79-101.
- 박숙자(1991). 도시 저소득층의 혼인양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또하나의 문화.
- 박혜인(2001). 가정의례의 변화와 21세기의 지향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6(1), 31-54.
- 안정남(1991). 현대 결혼 의례의 의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또하나의 문화.
- 양옥경(2000). 한국 가족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 69-99.
- 양옥경(2001). 가족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175-199.
-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고선주(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1: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157-182.
- 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고선주(2000).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2: 농촌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0), 157-180.
- 옥선화, 성미애, 신기영(2000).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8(9), 1-17.
- 이광자(1999). 광복 이후 우리나라 혼, 제례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 153-187.
- 이기춘, 조은정(1992). 도시 신흥기타계의 결혼비용과 신흥주거자금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95-113.
- 이현주, 박서정, 지영숙(2003). 혼례비용 및 혼례 준비과정 표준화. **생활과학**, 6, 119-134.
- 임혜경(2001). IMF 이후 혼례소비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8, 109-136.
- 장진경(2005).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3(11), 165-183.
- 정용선, 김경연, 김득성(1995). 혼수의 사회적 의미 및 혼수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교환이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3(6), 115-136.
- 정태연(2006). 사회적 독립가능성과 결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2), 143-162.
- 조희선, 류미현(1999). 사례를 통해서 본 혼수관행문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79-190.
- 홍나영, 이은진, 박선희(2002). 20세기 한국의 혼례 문화 변천에 관한 연구-서울과 경상도의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1), 141-156.
- Blood, O. R., & Wolfe, D. M.(1960). *Husbands and wives*. New York: Macmilan Company.
- Burr, W. R., Ahern, L., & Knowles, E. M.(1977). An empirical test of Rodman's theory of resources in cultural contex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505-514.
- Cheek, G. F.(1987). Power and ideology in marriage: A reexamination of resource and normative theory using multiple measures of power.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Conklin, G.(1979). Cultural determinants of power for women in the family: A neglected aspect of family research.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0, 35-53.
- Flurry, L. A.(2007). Children's influence in family decision-making: Examining the impact of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0, 322-330.
- Foa, U. G.(1993). *Resource theory: Explorations and applications*. California: Academic Press.
- Jenkins, R. L.(1979). The influence of children in family decision-making: parents' perceptio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6(1), 413-418.
- Kang, S.(1991). Family Decision Making in Korea: An

- Empirical Study on the Newly Forming Family. *The Hanyang Journal of Economic Studies*, 12(1), 245-296.
- Moschis G. P., & Mitchell, L. G.(1986). Television advertising and interpersonal influences on teenagers' participation in family consumer decision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3, 181-186.
- Quarm, D.(1981). Random measurement error as a source of discrepancies between the reports of wives and husbands concerning marital power and task alloc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21-535.
- Roberts, M. L., Wortzel, L. H., & Berkeley, R. L.(1981). Mothers'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influence and their effect on family consumptio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8, 730-735.
- Rodman, H.(1967). Marital power in France, Greece, Yugoslavia and the United States: A cross-national discu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9, 320-324.
- Rodman, H.(1972). Marital power and the theory of resources in cultural context.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 50-69.
- Warner, R. L., Lee, G. R., & Lee. J.(1986). Social organization, spousal resources, and marital power: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121-128.

접 수 일 : 2008년 1월 31일

1차 심사시작일 : 2008년 2월 12일

1차 심사완료일 : 2008년 2월 27일

게 재 확 정 일 : 2008년 3월 21일